해남 쓰레기소각장 '반쪽 시설' 전락

처리용량 부족·잦은 정비로 제때 가동 못해

해남군이 50억원을 들여 만든 쓰레기 소각장이 '반쪽 시설'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4년 완공, 가동에 들어간 해남읍 북평리 해남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단지내 쓰레기 소각장이 처리용량 부족과 정비 때문에 제때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에는 현재 태워야 할 쓰레기 500t이 적체돼 이 물량만 처리하는 데도 한 달 가량 걸린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쓰레기가 제때 소각되지 못한 채 적체되는 것은 처리용량이 부족한 데다 잦은 정비작업으로 인해 가동을 못 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이다.

폐비닐과 헌옷, 종이 등을 고온 열분해 방식으로 태우는 이 소각시설의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25t이지만 해남에서는 여름에 하루 23t, 겨울에는 20t의 소각용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쓰레기 적체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60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소각로 정비 때는 보름 정도 소각장 가동을 하지 못해 하루 24시간 소각을 하더라도 군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의회 A 의원은 "예산에 맞춰 소각시설을 만들다 보니 4년여 만에 쓰레기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조만간 소각장을 또 지어야 할 형편"이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소각로 정비와 보수가 끝났고 소각장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해 적체된 쓰레기를 겨울철에 최대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녹두 고부가 가치 길 열렸다

道 농기원 연구팀, 기능성 물질 대량 분리

미백비누·크림·음료 등 제품 개발에 성공

녹두와 미백크림〈사진 아래〉

녹두를 고부가가치 산업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연구소(소장 방극필)는 최근 녹두껍질에서 기능성 물질을 대량 분리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해 미백비누·크림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미래농업 연구소팀은 먼저 녹두에 함유된 주요 기능성 물질인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 껍질에만 분포함을 밝혀냈다.

특히 '비텍신'은 신경보호와 항산화·미백(美白) 활성 효능이, '이소비텍신'은 항암(난소암), 비브리오 패혈증균 저해, 미백 및 항산화 활성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녹두 껍질에서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의 추출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두 성분을 저비용으로 대량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등록했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따라 숙취해소(해독) 및 미백용 영양크림과 비누, 발효(식초)음료 등 산업화의 길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녹두는 나물, 죽, 빈대떡 등에 주로 소비되고 전국적으로 40% 정도가 깐녹두로 유통되고 있으며 부산물인 껍질은 1천t 정도로 대부분 퇴비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녹두 소비량은 연간 8천450t으로 자급율은 20%(1천650t)에 불과하며, 전남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도 전통가옥 관리 강화

관리 않고 방치 땐 문화재 지정서 제외

전남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문화재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하는 등 전통가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문화재 지정 전통가옥 보존관리계획'에 따르면 빈집으로 방치된 전통가옥은 일선 시·군에서 관리권을 위임받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민박이나 농촌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권을 위임받지 못하거나 소유주가 매입에도 협조하지 않고 계속 빈집으로 방치한 전통가옥은 관리소홀 정도에 따라 관리비 차등지원이나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통가옥을 새로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는 가옥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과 소유자의 보존·관리계획을 반영해 소유자나 지자체의 보존관리 의지가 없으면 신규지정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내 국가지정문화재는 29곳, 도 문화재 지정 전통가옥은 37곳으로 최근 이곳들에 대한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6개의 가옥이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

함평 '청소년 환경과학캠프'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 환경과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20일 나비·곤충모형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마련된 캠프에는 6회에 걸쳐 저소득계층 초·중학생 1천300여명이 참가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음악 있는 등대'를 아시나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예술적 형상의 조형 등대(높이 15.6m, 지름 3.2m)가 최근 완도항 방파제에 설치됐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이 2억3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음악 등대'는 터치패드에 손을 대면 내부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해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률에 맞춰 발광다이오드(LED)가 불을 밝힌다. /위직량기자 jrwi@

■ 새얼굴

"혁신도시를 나주 번영의 기회로"

이 광 형 나주 부시장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등 나주의 번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이광형(54) 나주 부시장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정의 세세한 부문까지 살펴서 위민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금천면 출신인 이 부시장은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4년 공직생활을 시작, 지난 2004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전남도 관광개발과장과 강진 부군수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경자 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미곡 종합처리장 영광군 통합 운영

영광지역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통합 운영된다.

영광군은 지역 내 미곡종합처리장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안에 통합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그동안 영광 지역의 RPC는 농협과 다른 민간 업체에서 각각 운영돼 시장 교섭력을 떨어뜨리고 유통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협과 민간 RPC를 통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미곡처리 시설이 현대화되고 쌀을 품종별로 보관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한편 '규모의 경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장흥댐 수몰민 성묘 수자원公 선박 운행

설을 앞두고 장흥댐 담수로 인해 고립된 분묘의 성묘를 위한 선박이 운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 관리단(단장 김승효)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묘객 집중 수송기간으로 정해 수몰민의 성묘를 도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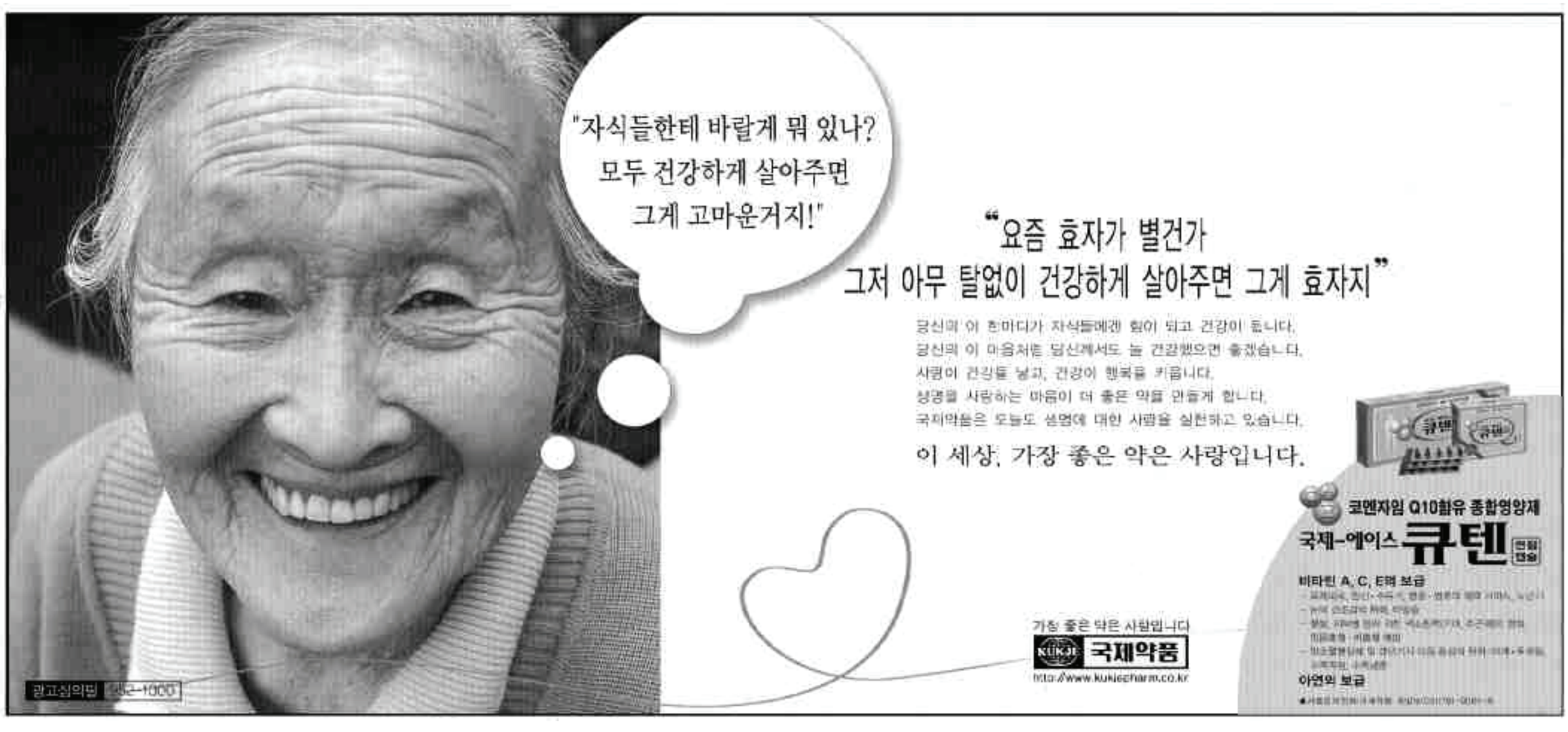
선박 운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선박을 이용한 성묘를 하려면 전남 서남권관리단 고객지원과(061-860-3223)로 성묘 하루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송기동기자 song@

100여년 된 토지대장 강진군 전산화 완료

강진군이 100여년 된 옛 토지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강진군은 최근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뒤 그동안 서고에 보관돼온 70여만장의 카드식 옛 토지대장을 1억3천만원을 투입, 스캐너 등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마무리했다.

옛 토지대장은 종이가 헐고 낡아 훼손될 우려와 함께 화재 등 재난에도 취약해 증명서 발급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이 작지 않았다.

강진군 관계자는 "옛 토지대장 전산화 작업 완료로 전국 어디서나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고 주민 재산권과 공적 장부의 안정적인 보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